



### S#1. 초등학교 D/ 인트로

7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음악이 흐르면서 빛바랜 필름 속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젊은 박선생의 모습이 보인다. 너무나도 밝고 온화한 모습의 젊은 박선생과 푹푹푹푹한 눈망울로 선생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시골의 순박한 아이들.

풍금을 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노래를 하는 서정적인 느낌의 박선생의 모습

임신으로 불룩해진 배를 어루만지면서 교문을 나서는 박선생. 아이들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정다운 얼굴로 손을 흔들어주는 박선생의 모습.

어느새 병원 수술실에 누워있는 박선생.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 일그러지며 입에 수건을 문 채 안간힘을 쓰는 박선생.

마침내 울음소리가 찌렁찌렁 울리며 간호사의 손에 팔려 나오는 아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은 간호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며 서둘러 아기를 수건에 감싼다. 의사와 간호사의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런 빛이 박선생의 얼굴에 스쳐간다. 수건 속에 유난히도 크게 울어대는 아기의 예스럽지 않은 얼굴이 순간 보였다가 화면 어두워진다. 어두워진 화면 속에 더욱 크게 매아리치는 아이의 울음소리.

### S#2. 타이틀

‘스승의 은혜’ (가제)

### S#3. 별장 지하실 D/I

불에 탄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어두운 지하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시선

햇살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적지 않은 양의 장난감과 책들이 잘 정리 되어 쌓여 있다.

카메라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드러나는, 구구단이 삐곡히 적혀 있는 철판과 그 앞에 흐트러진 오래된 나무 책걸상. 오래 전엔 교실과 별다르지 않은 장소였음을 짐작케 한다.

각 책상 아래부터 걸상, 바닥 곳곳에 그려있는 여러 개의 피해자 아우트리인에 번쩍 번쩍 터지는 플래쉬.

검사관들이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순간적으로 피해자 아우트리인 위로 참혹하게 죽은 사체가 보였다 사라지곤 한다.

현장 조사하는 검사관들과 형사들의 머리칼에 지하실 창으로 들어온 한줄기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그 빛을 따라 창밖으로 빠져나가는 시선.

### S#4 별장 앞마당 D/E

남은 음식이 널부러져 있는 테이블에 걸터 앉아 끝까지 타버린 담배를 물고 있는 마형사.

답답한 표정으로 별장 앞마당을 한바퀴 둘러본다.

아담한 전원주택 같은 별장 주위를 두르고 있는 나무 울타리. 한쪽에는 그네가 있고 별장 정면

으로 울타리를 잇는 꽃대문이 보인다.

울타리 밖으로 엠블런스와 경찰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꽃대문에는 바리케이트를 친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하다.

바리케이트 밖으로 낚시가방을 맨 남루한 모습의 한 남자.

막아서든 경찰의 어깨 너머로 별장 안을 기웃거리는 남자의 모습에

마형사의 시선이 지나치는 순간 '뽕그랑' 소리에 테이블 쪽으로 눈을 돌리면

도둑고양이 한 마리, 술병을 쓰러뜨리고 쓴살같이 테이블에서 뛰어내려 울타리 쪽으로 도망친다.

울타리 밖에서 김형사, 선배님 가시죠! 하며 부르는 소리에 고양이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별장 꽃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마형사.

#### S#5 별장 울타리 밖 D/E

꽃대문을 나서서 경찰차에 오르는 마형사.

김형사 (시동을 걸며) 형사 생활 십년 만에 제대로 한번 크게 걸린 거 같아요...

마형사 (한숨 쉬며) 어찌 꿈자리가 수상하더만...

김형사 어디 가서 낚술이나 딱 한잔 했으면 좋겠네...

머리가 아픈지 관자놀이를 누르는데 울타리 밑으로 도둑고양이가 눈에 들어온다.

무심하게 바라보는 마형사.

마형사의 차가 출발하고 나자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도둑고양이.

찢어질 듯이 크게 벌리는 고양이 입속으로 시선이 들어가며

#### S#6 병원장실 D/I

엑스레이 사진으로 오버랩 된다.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의사.

그 앞에 서 있는 마형사.

의사 그렇지 않아도 박선생님은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환자거든요. 신경계 계통에 문제가 있는 듯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몸 상태가 나빠지는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마형사 그럼 의식은 언제쯤...?

의사 (차트를 뒤적이며) 뭐, 유독가스 걸식에다 정신적인 쇼크로 인해 의식을 잃은 것 뿐이니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수화기를 드는 의사.

의사                   으응... 그래? 알았어. (마형사에게) 박선생님 옆에 환자분은 의식을 찾으셨나 본데요?

마형사의 표정.

S#7 병실 D/I

형광등 아래, 잘 정돈 된 두 개의 침대가 보인다.  
그늘음과 피가 범벅이 된 두 여인의 맨발이 유난히 눈에 띈다.  
왼쪽 침대에는 흰머리가 희끗한 박선생이 산소 호흡기를 댄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고,  
시선이 옆으로 흐르면,  
악몽을 꾸는지 이마에 땀이 흥건한 미자가 경련을 하듯 가끔씩 몸을 떨어댄다.  
노크 소리 후,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마형사

화면 바뀌고,  
초점 없는 시선으로 바로 누워 있는 미자.  
수첩을 꺼내들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마형사.  
둘 사이의 어색한 침묵이 계속 되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점점 커져 간다.

화면 바뀌고 (시간경과)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형사. 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하는 수 없다는 듯 베개 옆에 명함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괴성을 지르며 몸을 비트는 미자

마형사                   (돌아보며) !!!

경련하는 미자의 어깨를 양팔로 붙잡으며 안정시키는 마형사.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마형사의 소매를 움켜잡는 미자.  
떨리는 미자의 눈동자에 물결이 일면서 세찬 파도와 오버랩 된다.

S#8 바닷가 방파제 (교차편집) D/E

세찬 파도, 어둑어둑한 수평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이 낮게 깔린 구름,  
방파제 위, 휠체어에 앉아 있는 박선생.  
설레임이 가득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가끔씩 마른기침을 하지만 표정은 밝다.  
박선생의 모습 중간중간 제자들이 별장을 찾아오는 모습이 교차되어 보여진다.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순희의 스포츠 카.  
고목이 우거진 숲 속으로 들어서는 달봉이의 차.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을 법한 깊은 숲 속을 가로지르는 반장 부반장의 차.  
적막한 숲 속에 차의 엔진 소리가 산새들을 깨우면서 어디론가 깊이깊이 빠져 들어가는 듯하다.  
햇빛 한점 없는 숲 속에서 벗어나는 명호의 차.  
긴 터널을 빠져나오듯 밝은 햇살과 은빛 바다가 반긴다.

바다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선생.  
뒤에 미자가 와서 쇼울을 덮어준다.

미자                   너무 오래 계셨어요. 그만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시는 게...  
박선생                 괜찮아. (미소 짓는)

박선생, 어깨 위의 미자의 손을 꼬옥 잡는다.

#### S#9 별장 전경 D/E

다락방이 달려있고 낮게 지하실 창문이 보이는 2층 건물의 별장.  
잔디가 깔린 널따란 앞마당 구석에 오래된 그녀가 놓여 있다.  
나무 울타리가 건물 주위에 원을 그리고 있고 정면에 꽃대문이 울타리를 잇고 있다.  
1층 박선생의 방 창문으로 박선생에게 화장을 해주고 있는 미자의 모습이 보인다.

#### S#10 별장 테라스 D/E

테라스에서 곱게 화장을 한 얼굴로 책을 읽고 있는 박선생.  
누구를 기다리는 듯 습관적으로 자꾸만 앞마당을 쳐다본다.  
그러다가 환하게 변하는 얼굴.  
앞마당, 울타리 쪽에 그녀를 타고 있는 부반장과 그녀를 밀고 있는 반장.  
반대쪽에 도끼로 장작을 펴고 있는 달봉과 장작을 주워 정리하는 명호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서 과일을 꺾고 있는 순희.  
모두 박선생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박선생                 (뒤를 돌아보며) 미자.. 미자야..  
미자                   (OFF) 네, 선생님  
박선생                 (환한 얼굴로) 모두들 언제 온 거야? 왜 말 안했니?

박선생, 다시 앞마당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없는 을씨년스러운 앞마당.  
그네에도 장작더미에도 흔들의자에도 아무도 없다.

미자                뭐라고 하셨어요?  
박선생            (당황한 듯) 아니 방금 여기에...  
미자                (빙긋 웃으며) 올 시간 다 됐어요. 많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미자, 박선생의 이마의 식은땀을 닦아주는데  
앞마당에 클락션을 울려대며 들어오는 차.

#### S#11 박선생의 방 D/E

커다란 창문으로 바깥 풍경이 훤히 보이는 방.  
창가 쪽 낮은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흐뭇하게 바라보는 박선생.  
박선생에게 큰절을 하고 일어서는 명호.

명호                몸이 이렇게 편찮으신지 몰랐어요. 진작 찾아뵙어야 했는데...

박선생, 고개를 가로젓고 흐뭇하게 웃으며 손을 내민다.  
명호, 일어나 박선생 손을 잡으려는데 손에 마비가 온다.

박선생            명호구나. 김명호. 많이 의젓해졌네...  
명호                (애써 웃으며) 네, 선생님.  
박선생            정말 반갑구나.  
명호                저두요, 선생님  
박선생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쓰다듬는)  
명호                일단 짐부터 풀고 올게요..  
박선생            (손을 놓지 않고) 응응...

명호, 미안한 듯 잡은 손을 박선생 가슴팍으로 옮기며 미소진다.

명호                (나가려다 말고) 선생님  
박선생            응응?  
명호                오래 사세요.  
박선생            (힘없이 웃는)...  
명호                저희들이 은혜 다 갚을 시간은 주셔야죠...  
박선생            (힘없이 끄덕이는) ...

미소를 짓고 나가는 명호.

#### S#12 별장 앞마당 D/E

앞마당 한 쪽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미자.

두 손으로 빨래감을 뽕뽕하게 내려치다가 꽃대문에 들어서서 반장과 부반장의 차를 보고 얼굴이 환하게 변한다.

차에서 내리는 반장과 부반장.

덥수룩한 행색의 반장, 세호.

여리고 착하게만 생긴 부반장, 은영.

별장 건물 아래쪽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 (올려다보는 앵글)

미자 (다가가며) 왔구나?  
반장 미자?  
미자 응. (부반장에게) 은영이두 어서 와  
부반장 반가워. 혼자 고생이 많지?  
미자 (부반장의 손을 잡으며) 고생은 무슨...  
반장 (명호의 차를 보며) 그런데 우리 말구 누가 또 왔나 봐?  
미자 으응... 명호 먼저 와 있어.  
반장 김명호?  
미자 (미소 지며) 응, 기억나지?  
부반장 우리 말고 많이 오나 봐?  
미자 응, 연락되는 애들 몇 명 만...

현관에서 나오는 명호...

반장과 부반장을 발견하고 현관에서 뛰어 내려온다.

명호 이게 누구야, 반장?  
반장 명.. 명호구나?  
명호 (약간의 의외인 듯한) 너 얼굴이 왜 그래? 고생 좀 했나보구나?  
반장 (쑥술한 듯) 오래간만이다.  
명호 부반장두 진짜 반갑다  
부반장 반가워...  
명호 인터넷이 좋긴 좋구나...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그치?  
반장 그러게...  
미자 일단 선생님한테 인사드려야지?  
반장 응, 그래야지. (명호에게) 이따 얘기하자.  
명호 그래... (빙긋이 웃는)

미자를 따라 별장으로 들어서서 반장과 부반장.

별장 건물 아래쪽에서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 (올려다보는 앵글) 이 내려가면 지하실 모습이 드러난다.

S#13 별장 지하실 D/I

시선이 창 아래로 내려오면 낡은 어항이 보이고  
한쪽 구석으로 보이는 말끔히 정리된 책들과 장난감.  
어두운 벽 쪽에 걸어놓은 어린 아이의 낡은 옷,  
마치 사람이 서 있는 듯이 보이는  
멜빵바지에 체크무늬 스타킹이 길게 늘어져 있다.

S#14 박선생의 방 D/I

흐뭇하게 반장, 부반장을 번갈아 바라보는 박선생.  
절을 하고 일어서는 반장과 부반장.

박선생            오느라 고생 많았지?  
반장              아뇨. 아주 편하게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박선생            괜찮아...  
부반장            선생님 뵙고 싶었어요...  
박선생            그래...  
반장              참, 선생님 저희 결혼해요. 미자가 애기 했죠?  
박선생            (흐뭇하게 웃으며) 너희 예전에도 잘 어울렸었어...  
반장              그렇죠? 그때도 똑같이 말씀 하셨어요... 둘이 잘 어울린다구...  
박선생            그랬구나...  
반장              하필이면 우리 만만 반장 부반장이 둘 다 가난했잖아요...  
박선생            ...!...으응?  
반장              한숨 푸욱 쉬시면서 자알 어울린다... 그러셨어요.  
부반장            아냐... 끼리끼리 논다구 하셨어...  
반장              그랬나?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이렇게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평생을 같이 하게 됐어요.  
부반장            못 오시더라도 마음속으로 축하해주세요  
박선생            그.. 그래...

어색하게 미소 짓는 박선생.

S#15 별장. 앞마당 D/E

덩치가 좋은 달봉이, 버티고 서서 오느라고 고생을 했는지 거친 숨을 내뿜고 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기분은 좋은지 서서 환하게 웃으며 현관으로 들어선다.  
선물꾸러미를 들고 절룩거리며 들어가는 달봉이를  
별장 건물 아래쪽에서 지켜보는 시선 (올려다보는 앵글) 계속.



S#16 박선생의 방 D/E

달봉이 절하고 일어서는데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다시 앉으며 선물 상자를 선생님 앞으로 밀어 넣는다.

달봉이            선생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박선생            그럼. 운동 잘하던 달봉이 아니냐...  
달봉이            (장난끼 있게) 우아, 감동이에요... 절 다 기억해주시구.  
박선생            까부는 것도 여전한데 뭐...  
달봉이            (머리를 긁적이며) 에이 선생님도 제가 또 얼마나 까불었다고...

빙긋이 웃는 박선생.

박선생            그런데... 다리가 불편한가 보구나?

순박하게 머리만 계속 긁적이는 달봉이.

S#17 별장 거실 D/I

거실 한 쪽 벽면에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액자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다.  
슬래잡기 하는 모습, 말뚝박기 하는 모습, 꼬리잡기 하는 모습 등등의 흔히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그린 그림들이다. 그 앞에서 그림을 구경하는 미자와 부반장.

부반장            역시 천생 선생님인가 봐... 이런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구 계시네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근데 이거...  
미자                왜, 그 그림이 낯익어?  
부반장            응...  
미자                니가 그린 건가 보다.  
부반장            설마...  
미자                이거 다 우리가 그린 그림이래. 며칠 전에 정원이가 지하실 청소하다가 발견한 거거든 ..  
부반장            정원이?  
미자                응. 왜 우리들이 소심이라구 놀렸던 애 있잖아.  
부반장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지) 아... 중간에 학교 그만 둔 애?  
미자                응. 유일하게 고향 안 떠나구 지금까지 살구 있더라구...  
부반장            그래? (다시 그림을 보며) 근데 이거 진짜 새삼스럽다...  
미자                그치? (미소 짓는)

S#18 별장 남자방 D/E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반장.

명호는 가방을 정리하면서 반장의 눈치를 살핀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침대 시트 밑에 숨기는데 반장이 말을 걸자 순간 움찔한다.

반장 (창밖에 시선을 두고) 미자 덕분에 이렇게들 다시 만나게 되네. 평생 못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명호 그, 그러게... 나두 미자한테 연락 받구 깜짝 놀랐어.

반장 여기에 오니까 뭔가 정리 되는 느낌이랄까... 오길 잘한 것 같아.

명호 (창가 반장 옆으로 가며) 그래, 오니까 참 좋네.

반장 미자 참 대단해보여... 만만치 않은 성격에 몸까지 아프니 모시고 살기 만만찮을 텐데...

명호 뭐, 설마 지금까지 그러시겠어. 보니까 미자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시겠던데... 미자가 예전부터 좀 착하긴 했어, 그치?

반장 (끄덕이는) ...

명호 빗보다 공기 하나는 끝내준다.

명호, 창문을 열려고 팔에 힘을 주는데 갑자기 경련이 온다.

인상을 쓰며 팔뚝을 움켜쥐는 명호

반장 근데 너 어디 불편하냐?

명호 아, 아니. 괜찮아.

반장, 마비가 오는 것 같은 한쪽 손을 주무르는 명호의 행동에 의아해 한다.

스포츠 카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꽃대문에 들어선다.

차에서 내리는 순희.

짙은 선글라스와 짧은 치마, 명품으로 치장한 섹시한 모습이다.

창가에 서 있는 명호, 반장을 보고 마구 손을 흔드는 순희.

S#19 박선생의 방 D/I

미안한 얼굴의 박선생.

달봉이 (머리를 긁적이며) 그때 하루 종일 오리걸음 하고 나서 다음날 축구시합 무리하게 뛰다가 인대를 다쳤잖아요... 잘 됐죠 뭐. 운동선수 해봤자 밥 먹구 살기 힘들었을 텐데...

박선생 오리걸음?

달봉이 (답답하게) 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그때 운동회 릴레이 마지막 주자로

뛰는데 까불다 자빠져서 선생님한테 뺨따귀 맞았잖아요...

박선생 (피 웃으며) 녀석, 설마 내가...

달봉이 (웃으며) 그때 옆 반 선생님이랑 라이벌이셨잖아요. 그 반 선생님이랑 내기까지 하셨는데 다 이긴 경기를 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다음날 기합 업 청 받았는데 잊으셨어요?

박선생 (설마 하는) 글썽... 난 기억이...

달봉이 (머리 긁적이며) 선생님 생각하면 늘 그게 맘에 걸렸었어요... 제가 까블지만 않았어도....죄송해요. 선생님

박선생 (난처해서) 아..아냐...

그때, 들어오는 순희.

순희 (반기며) 선생님!

한참을 바라보는 박선생.

박선생 순... 순희?

순희 네, 순희예요.. 최순희. 선생님, 진짜 진짜 보구 싶었어요!

박선생 그래, 어서 와.

순희 역시 선생님이세요. 애들은 날 못 알아보는 거 있죠...

박선생 왜, 살이 좀 빠졌지만, 어렸을 적 모습은 그대론데.

달봉 (순희를 뚱뚱히 바라보며) 너...

순희 허달봉! (등짝을 한 대 치며) 자식 진짜 오랜간만이다

달봉 니가 진정 내가 슈퍼돼지라구 놀려대던 그 순희란 말이나?

순희 어쭈! 그래, 임마! (선생을 보고 웃으며) 저 많이 용 됐죠?

박선생 (미소 지으며) 원래 예뻐는데 뭘...

순희 그대됐자, 선생님 치녀 때랑은 비교도 안 되긴 하지만...

박선생 (웃으며 손사래를 치는) 에이...

순희 (간절하게) 선생님!

박선생 응?

순희 (와락 껴안으며)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박선생, 미소 지으며 순희의 등을 다독여준다.

S#20 별장 거실 D/I

거실 장식장을 열어보는 반장.  
 커다란 유리병을 꺼낸다.  
 쟁반을 들고 나오는 미자.

미자            술 좋아하는 구나?  
반장            필 담은 건데?  
미자            복분자...  
반장            (화색이 들며) 맛 좀 봐도 돼?  
미자            그럼. 그냥 심심해서 담가본 거야... 이 집엔 먹을 사람 없어.

미소 짓고 밖으로 나가는 미자.  
병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는 반장.  
편한 복장으로 방에서 나오는 달봉과 명호

달봉            야, 아직 날두 흰한테 벌써부터 무슨 술타령이야? 나가서 놀자.  
반장            니들끼리 놀아. (술병을 내밀며) 난 이게 노는 거거든...

술병을 끌어 안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반장.  
여자방에서도 부반장과 순희, 편한 복장으로 나온다.

달봉    (부반장에게) 야, 재 원래 저러냐?

부반장, 한숨을 푸욱 쉬며 반장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S#21 별장 현관 D/I

모두들 현관에서 나오다가 앞마당으로 시선이 모아진다.  
병거지를 모자를 쓰고 낚시 가방을 맨 허름한 행색의 정원이가 (소심이) 서 있다.

미자            (반기며) 왔구나! 그날은 잘 들어갔어?

고개를 보일 듯 말 듯 꼬덕이는 소심이.

미자            (아이들에게) 모르겠어? 정원이야, 유정원.  
달봉            혹시... 소심이?  
미자            (미소 지으며 꼬덕이는)

약초가 가득한 바구니를 미자에게 건네주는 소심이  
다들 반갑다기 보단 의외라는 듯 소심을 바라본다.

S#22 별장 주변 전경 D/E

바닷가에서 뛰어 노는 부반장, 명호, 순희, 달봉.  
 방파제 위에서 홀로 낚시를 하고 있는 소심이.  
 별장 앞마당에서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는 미자.  
 테이블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반장.  
 테라스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을 즐겁게 보고 있는 박선생.  
 이 모든 모습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S#23 바닷가 D/E

합성을 지르며 모래시장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가는 명호.  
 순희의 손목을 움켜쥐고 무작정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  
 까악~ 비명을 지르며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순희  
 깔깔대고 웃으며 순희를 넘어뜨리는 명호.  
 바다에 거꾸로 처박혀서 발버둥치는 순희.  
모래시장에서 재밌다는 듯 바라보는 부반장과 달봉,  
 명호, 다시 부반장을 실실 쫓개며 모래시장으로 나오고  
 부반장, 명호와 눈이 마주치자 슬슬 뒤로 피한다.  
 하지만 도망치다 명호에게 손목이 잡히는 부반장,  
 무작정 다시 바다 속으로 뛰기 시작하는 명호.  
비명을 지르며 질질질 끌려가다가 바다 속으로 얹어지는 부반장.  
순희와 부반장, 서로 눈빛을 주고 받은 다음에 달봉을 바라본다.  
 달봉이 겁먹은 얼굴로 다리를 절면서 별장 쪽으로 도망친다.  
 하지만 바로 순희와 부반장에게 잡히고  
 달봉이의 팔다리를 양쪽에서 잡고 바다 속으로 던져버리는 순희와 부반장.  
 다들 재밌다는 듯 깔깔대고 웃으며 물싸움을 한다.

S#24 별장 앞마당 D/E

술을 마시고 있는 반장의 테이블에 간단한 안주 접시를 내려놓는 미자

미자                    같이 어울리지 않고?  
 반장                    으응. 그냥...  
 미자                    왜, 애들 반갑지 않아?  
 반장                    반갑지. 근데 그럴 기분이 아니네.  
 미자                    (안쓰럽게 쳐다보며) 너무 많이 먹진 마.  
 반장                    (끄덕이는)  
 미자                    더 필요한 건 없고?  
 반장                    됐어. (미자를 바라보며) 근데...  
 미자                    응?

반장 소심, 아니 정원이 자식 말야.  
 미자 정원이 왜?  
 반장 여기 자주 들리나 봐?  
 미자 와서 힘든 일 있으면 가끔 도와주고 그래. 여자만 둘이 살다보니까...  
 반장 선생님이랑도 잘 지내나?  
 미자 으응. 왜?  
 반장 아니, 저놈 보니까 예전 일이 생각이 나서... 똥 싸다고 쫓겨나고 학교까지 그만 났잖아.  
 미자 예전 일인데 뭐... 지금은 선생님한테 잘하는 거보니까 다 잊은 거 같아.  
 반장 그날 엄마까지 교통사고 나고 죽을 맛이었을 텐데 (피식 웃으며) 과연 그렇게 쉽게 잊혀질까?  
 미자 가끔 귀한 약초도 구해다 주고 그러는데 설마...  
 반장 그놈 속을 누가 알겠냐... (술을 들이키는)

젖은 몸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앞마당에 들어서는 순희.

미자 (순희에게) 벌써 들어와?  
 순희 아씨. 몸이 젖으니까 찻찻해서... (미자와 반장을 번갈아보며) 들어서 뭐하는 거야? 이거 분위기 수상한데?  
 미자 (반색하며) 예, 곧 결혼 할 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순희 (킬킬대며) 순태야! 넌 어찌 한 개도 안 변했나? (미자를 끌고 가며) 가자. 이런 술꾼이랑 같이 놀면 안돼. 너 성격 버려.

반장, 피식 웃고 마시던 술을 들이킨다.

S#25 바닷가 D/E

여전히 물장난을 하며 바다에서 놀고 있는 명호, 부반장, 달봉,  
 물속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그들의 다리가 보인다.  
 매끈하게 빠진 부반장의 다리로 점점 다가가는 시선.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며 놀고 있는 부반장.  
 그러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며 발버둥을 친다.  
 저쪽에서 명호, 무슨 일이나고 소리치는데  
 물속으로 쭈욱 빨려 들어가는 부반장.

이런 바닷가에 있다.  
 남해공(?)

S#26 별장 여자방 D/I

창가에서 옷을 갈아입는 순희.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푸는 순희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까만 브래지어가 얼핏 보이고

미끈한 다리 아래도 흘러내리는 블라우스.  
큰 사이로 순희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  
브래지어 호크를 풀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순희.  
팔로 가슴을 가린 채 창을 한번 바라본다.  
긴장한 얼굴로 창가로 다가가는 순희.  
커튼을 확, 걷어버리는데  
창밖에는 아무도 없다.

#### S#27 바닷가 D/E

모래사장 돌 위에 올려놓은 제자들의 젖은 핸드폰.  
옆으로 부반장의 등을 두드리고 있는 명호.  
물을 토해냈는지 무릎 앞에 모래가 흥건하게 젖어 있고, 계속 기침을 해대는 부반장.  
이제야 안심이 되는지 힘이 빠지며 뒤로 풀썩 주저앉는 명호.

달봉이           괜찮아?  
부반장           (충혈 된 눈으로 꼬덕이는)  
명호             어떻게 된 거야?

부반장의 몸에 수건을 덮어주는 명호.

달봉           이상하게 선생님 집에만 오면 꼭 이런 일이 생겨.  
명호           건 또 무슨 소리야? 재수 없게.  
달봉           옛날에도 소심이두 기절했었잖아.  
부반장       (달봉이를 바라보는) ...!  
달봉           하긴, 그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명호           야. 다신 그 얘기 꺼내지 않기로 했잖아.  
달봉           뭐, 어떠냐? 벌써 시간이 십여 년이나 지났는데.  
부반장       그땐 우리가 잘못 한 거였어.  
달봉           (통통거리며) 뭐, 누가 지하실에 자기애를 숨겨놓구 키우는 줄 알았나?  
명호           (소리치는) 암마!  
달봉           (꼬리 내리며) 왜...  
명호           (경고하듯) 너, 혹시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 얘기 꺼내지 마라.  
달봉           내가 바보냐? 안 그래두 아까 지하실에 가보려니까 미자가 말리더라고.  
명호           ?  
달봉           미자두 거긴 절대 못 내려가게 한대. 아직두 그 물건 그대루 두구  
                  건드리지두 못하게 한다는데...

명호,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돌리는데  
방파제 위에서 홀로 낚시를 하던 소심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S#28 별장 앞마당 D/E

모두 파티 준비에 열심인 모습.  
앞마당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장작을 때는 소심이.  
도끼질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혀를 내두르며 쪼개진 장작을 옮기는 달봉과 명호.  
테이블 중간에 케이크를 놓는 부반장.  
이미 취해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테이블에 엎드리고 있는 반장.  
그런 반장을 보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부반장.  
바비큐 그릴을 조리하는 명호. 자꾸만 팔뚝을 주무르는 모습.  
현관에서 쟁반을 들고 나오는 미자.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서 손톱 손질을 하고 있는 순희.  
그런 순희 모습이 못마땅한 달봉이, 한마디 던진다.

달봉            조순희! 넌 뭐하나?  
순희            (손질을 계속 하며) 나? 손톱 색깔이 맘에 안 들어서..  
달봉            (비꼬듯) 너는 여기 주인이구 우리는 하인 같다?  
순희            (속없이) 내가 그렇게 우아해 보여?  
달봉            (기가 막힌다는 듯) 말을 말자.  
순희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알잖아, 나 무지 정서불안이  
                  라 사고만 치는 거. 그치, 미자야?

테이블에 음식을 정리하며 미소 짓는 미자.

미자            그럼 선생님 산책이나 시켜 드려.  
순희            (반기며) 그럴까?  
미자            선생님 산책하는 거 좋아하셔.  
순희            (일어나며) 기집에, 왜 그걸 이제 말해주니?

선생님, 우리 산책하러 가요.. 하면서 푹푹뛰어 들어가는 순희의 모습.  
그리 입지 않은 순희의 귀여운 행동에 다들 가벼운 웃음을 짓는다.

S#29 오솔길 D/E

별장과 바닷가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뒷산 오솔길.  
박선생이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밀고 가는 순희.  
남떠러지 앞에 휠체어를 세운다.



순희 산책 나오니까 기분 좋으시죠?  
 박선생 (기침을 하며) 응.  
 순희 몸이 안 좋으시면 그만 돌아갈까요?  
 박선생 아냐, 괜찮아.  
 순희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와, 공기 좋다. 선생님도 숨 한번 크게 들여 마셔 보세요.  
 박선생 (웃고 마는)  
 순희 그러구 보니 그때두 이맘때였던 거 같은데, 신체검사 하던 날 기억하세요?  
 박선생 글썽?  
 순희 제 몸무게 켈 때 체중계가 마침 고장이 나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뱃살 꼬집으면서 엄청 놀리셨었어요. 애들은 웃겨서 다 뒤집어지구...  
 박선생 (웃으며) 내가?  
 순희 정말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창피했었는데요...  
 박선생 (미안한 표정) 그, 그랬구나...  
 순희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란 건요...  
 박선생 ...?  
 순희 그게 오히려 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날만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구 죽자 살자 살을 뺐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날씬해지고 보니까 역시 선생님이 괜히 그러신 게 아니구나... 또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니깐요.  
 박선생 (썩썩한 얼굴) ....  
 순희 근데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외모만 집착하게 되는 거 있죠. 살 빼구 수술하느라 써는 돈 족족 다 써버렸으니... 제까 재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박선생 (안타깝게) 왜 그랬니?

박선생 앞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는 순희.

순희 선생님 제 눈 한번 보여드릴까요?  
 박선생 ...?  
 순희 괜히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좀 흥직할텐데, 괜찮겠어요?  
 박선생 ...!  
 순희 잘 보세요..

순희, 땀을 들이며 선글라스를 내리는 시늉을 하자 긴장하는 박선생.  
 흥직한 눈이 보일 듯 말듯하다가 다시 올려 쓰는 순희, 깔깔 대고 웃는다.

순희 애들 기다리겠어요. 그만 가요.

휠체어를 돌리는 순희.

썩썩한 박선생.

휠체어를 몰고 가면서 뒤쪽 낭떠러지를 한번 돌아보는 순희.

S#30 별장 앞마당 N/E

어둑어둑해진 날씨.

휠체어에 앉은 박선생을 중심으로 테이블에 둘러앉은 제자들.

테이블에는 푸짐한 음식 사이로 촛불이 흔들거리는 케이크가 놓여 있고,

미자가 아이들의 잔에 복분자주를 한잔씩 따르고 있다.

반장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사회를 보는 게 영 불안하다.

반장                자자자, 이제 동창회 겸 스승의 날 기념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잔을 채워주시고... (둘러보고) 선생님께서 촛불을 끄신 후 다같이 건배하겠습니다.

선생님, 웃으며 손을 젖는다.

반장                선생님이 끄셔야 돼요. 어서요!

박선생             그냥 반장이 해...

반장                그럴 수는 없지요.. 어서요, 다들 박수 준비!

박선생, 하는 수 없이 촛불에 입김을 불어보지만, 힘이 없어 촛불은 흔들거리기만 한다.

다시 힘주어 불어보려다가 기침을 해대는 박선생.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서둘러 촛불을 꺼버리며 분위기를 수습하는 순희.

순희                괜찮으세요?

박선생             (간신히 기침을 멈추고) 난 괜찮아.. 어서 건배해야지.

반장,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반장                거봐, 나 안 한다고 했잖아!

순희                (한마디 하려는데)

달봉이             야, 빨리 건배하구 좀 먹자. 배고파 죽겠다

순희                (그만 두고) 그래, 건배하자. (잔을 높이 들며) 건배!

다들, 건배를 외치고 잔을 입에 댄다.

원샷을 하고 잔을 머리에 터는 순희.

달봉                선생님! 오늘 날이 날이니 만큼 한마디 하셔야죠.

박선생             아냐, 그냥...

달봉                에이, 생명의 양식 같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순희 (해달라고 조르는)  
박선생 뭐 딱 건 없고...

모두 경청하는 분위기.

박선생 다들 예전처럼 친하게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달봉 (큰소리로) 명심하겠습니다!!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박선생도 친근하게 옆에 앉은 명호의 팔뚝을 잡으며 웃는다.

달봉 자자, 이제 좀 먹자. 15년 만에 다시 만나자마자 다 굶어죽겠다...  
순희 내 말이... 이제 먹어도 되죠, 선생님?  
박선생 그럼. 자, 어서들 먹자.

시끌해지며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박선생 (명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명호두 많이 먹어라...  
명호 (바라보는) .... 네.  
달봉이 (소심이에게 잔을 채워주며) 유정원. 오랜간만이다. 한잔 받아라  
소심이 (잔을 받는) ...

술을 넘기는데 소심이 목에 매달린 목걸이가 반짝거린다.

달봉이 (쩍 웃으며) 안 어울리게 웬 목걸이나?

달봉이 목걸이를 만지려는데 손을 탁 치는 소심이.  
목걸이를 옷 속으로 넣어버린다.

달봉이 (농담조로) 새끼 아직도 계집애처럼 소심하네?  
소심이 (대답 없이 술잔에 술을 따르는)  
달봉이 (중얼거리듯) 하긴 천성이 어디 가겠냐...

까불면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달봉이.

S#31 별장 전경 N/E

웃음이 그치질 않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지만,  
하늘엔 금방 비라도 쏟아질 듯 먹구름이 가득해 음산하기 그지없다.  
이 모든 광경을 여전히 별장의 지하실 창에서 올려다보는 시선.

S#32 별장 앞마당 N/E

명호 옆에 바짝 붙어서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명호의 어깨를 감싸며 즐거워하는 박선생의 모습이 특별히 명호를 생각하는 듯한 오해를 살  
만하다.

박선생에 비해 얼굴이 그리 밝지 않은 명호.

일어나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긴다.

별 다른 반응이 없는 박선생. 여전히 표정이 밝다.

달봉이 선생님.

박선생 응?

달봉이 우리 정말 많이 컸죠?

박선생 (웃는) ...

달봉이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 진 거 같아요?

박선생 글썽...

순희 넌 아니니까 걱정 마!

제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는 박선생.

박선생 내가 보기엔... 명호가 제일 멋있게 변한 거 같은데?

달봉이 에이...(실망하는)

반장 (비꼬듯이) 임마, 원래 선생님은 딱 정해져 있어. 남자 중에는 명호, 여자  
는 중에는 미자! 몰랐나? 새삼스럽게..

달봉이 하긴... (명호에게) 좋겠다, 넌. 선생님 사랑 이따이 받아서...

명호 (찌려보는) ...

순희 선생님, 달봉이두 예뻐해 주시구 그러세요. 재 저러다 다신 안 올 거 같아  
요..

박선생 너희들은 나한테 모두 똑같이 소중한 제자들이야.

달봉 선생님 지금 열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딴냐고 그런 말씀 하실  
려고 그랬죠? 그거 이제 안 통해요. 새끼손가락이 쥘 아프다는 건 삼척동  
자두 다 알아요!

다들 달봉이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길으로는 마냥 즐거운 듯하지만,

(굳은 표정의 명호, 불만이 가득한 반장, 마냥 농담만 던지는 달봉, 필요 이상으로 박선생에  
게 친근한 척 하는 순희,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짓는 부반장.)

제각기 다른 표정들이 묘한 분위기를 만든다.

그 가운데 테이블 한쪽에 홀로 앉아 안주 없이 술을 마시는 소심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본다.

S#33 인서트 썸 - 소심이의 회상 D/E

올다리 밖의 시선으로 별장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지하실 창문에 붙어 있는 아이들.  
지하실 어둠 속에서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온다.  
문틈으로 손을 던지고, 막대기를 흔들고 장난을 치는 아이들.  
지하실 어둠 속에서 꿈지락거리는 기형아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창가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자, 숨을 죽이는 아이들.  
마침내 기형아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까악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아이들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올다리 근처에서 넘어지는 어린 명호.  
뒤를 돌아보자 소심이 홀로 여전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창 안에 기형아를 보고 미소를 짓는 소심이.  
순간, 소심이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어느새 나타난 젊은 박선생이 소심이를 노려보고 서 있다.  
집을 집어먹는 소심이의 먹살을 잡는 박선생.  
귀싸대기를 날린다.  
소심이의 머리채를 잡고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가는 젊은 박선생.  
우우우~ 하는 기형아의 기괴한 울음소리.

S#34 별장 앞마당 N/E

바비큐 그릴의 숯불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빈 그릇이 눈에 띠게 많아진 걸로 보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듯하다.  
들러오는 달봉이의 트로트 노래 소리.  
노래가 끝나고 다들 좋아하며 박수를 쳐댄다.

달봉                    자, 이번에는 선생님 차례예요.

다들, 와 박수를 쳐대고,  
박선생, 웃으며 못하겠다고 고개를 돌린다.  
노래, 노래를 연호하는 달봉과 순희.

S#35 별장 앞마당 일각 N/E

약탕기에 부채질을 하며 한약을 달이고 있는 미자를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시선.  
반대편에서 박선생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를 감칠 나게 부르는 노래 소리와 환호하는 제자들 (달봉과 순희) 소리가 들려온다.  
흐뭇하게 테이블 쪽을 바라보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부채질을 멈추는 미자.

어둠 속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눈길이 그네에 멈춘다.  
녹슨 소리를 내며 삐걱삐걱 흔들리고 있는 그네.

S#36 별장 앞마당 N/E

박선생 앞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반장.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을 치켜뜨고 박선생을 노려보고 있다.  
아무 것도 모르고 감정을 잡아기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박선생.

인서트 컷 - 반장의 회상

박선생의 노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반장의 회상이 플래시백 된다.  
교무실에 박선생 앞에 서 있는 어린 반장.  
박선생이 뭐라 얘기하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다.  
화면 바뀌고, 가난이 온어나는 캄득한 옷차림에 환자인 듯한 창백한 얼굴의 반장 모  
박선생에게 봉투를 내민다.  
씨익 웃으며 책상 서랍에 봉투를 떨어뜨리는 젊은 박선생.  
출구 쪽에 촛석부들 꽃으며 슬픈 눈으로 내려보는 어린 반장.  
철판에 스승의 날이라고 금지막라게 써 있고 교탁에 선물이 쌓여 있다.  
고급 머플러를 목에 감은 박선생.  
이글거리는 반장의 눈에는 흐뭇하게 웃는 박선생의 목에 감긴 머플러만 강렬하게 보인다.  
(인서트 컷 끝)

박선생의 노래가 끝나자 앵콜을 외치는 달봉과 순희.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반장.  
박선생, 씩스럽다는 듯 수저를 내려놓으며 반장을 바라본다.

박선생            은영아, 세호 그만 재워야겠다.  
부반장            세호야, 취했어?  
반장                (취한 목소리로) 나 안 취했어.  
박선생            녀석, 아닌 척 하는 건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은영에게 눈짓하는)

부반장이 부축하려는데 소리 지르며 뿌리치는 반장.  
분위기 잠깐, 썰렁해지자 화제를 돌리는 순희.

순희                선생님 우리 1년에 한번씩이라도 여행 가요.  
박선생            여행?  
순희                여기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외국에두 나가구 동창회 겸 좋잖아요...  
박선생            글썸... 지금 내 몸이 이래서 그게 가능할까?  
순희                (서운하다는 듯이) 정 안되면 가까운 제주도라도요...

박선생 (웃으며) 진작에 좀 선생님 찾아오구 그러지 그랬어?  
순희 그러게요... 예전에 늘 건강한 모습의 선생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선생 너희들이 그때 하두 말썽을 피워서 선생님이 늙어서 이리 고생하는 거야...

박선생, 미소 짓는데 갑자기 컵 깨지는 소리.  
다들 놀라 반장을 바라본다.  
비틀 일어나는 반장.

반장 (취한 목소리로)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박선생 !!  
반장 그럼 우린 뭐 아주 잘 살구 있는 줄 아나부지?  
부반장 (말리며) 세, 세호야, 왜 이래...  
반장 놔! 니들두 할말 많잖아! 다들 왜 맘에두 없는 설레발이 까느라구 개고생 하는 거야?  
달봉 임마! 너, 왜 그래?  
반장 달봉이 너, 다리 그거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덕분에 평생 병신처럼 살구 있으면서 뭐가 좋다구 히히덕거리구 있어?  
달봉 ...  
반장 니들두 마찬가지야! (손가락질 하며) 하나 같이 신용불량자에 약쟁이에 왕따 새끼들이 핏 하러 여기까지 기어들어왔어? 세상에서 버림 받은 병신 같은 니들을 저 인간이 반겨주거나 할 것 같아?  
부반장 그만해.. (끌고 가며) 도대체 왜 그래?  
반장 (뿌리치며) 뭐, 우리 때문에 늙어서 개고생 한다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본 적 있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박선생.  
반장, 바비큐 그릴을 발로 걷어차고.

반장 니미, 내가 당신 보구 싶어서 왔는지 알아? 시발, 얼마나 잘 먹구 잘 살구 있는지 확인하러 왔어!

반장, 씩씩대며 비틀비틀 어디론가 가버리고.  
다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며 박선생의 눈치를 살핀다.

순희 (조심스럽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선생 너희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몰랐어. 다 내 잘못이겠지... 하지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달봉 맞아요, 선생님. 반장이 취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순희 네.. 저희는 정말 선생님한테 요만큼도...  
박선생 (울먹이며) 그런데 지금 좀 많이 서운하구나...

부반장           죄송해요, 선생님... 세호 저러는 거 처음 봤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서...  
달봉           (벌떡 일어나며) 반장이라는 새끼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는 박선생.

순희           괜찮으세요?  
박선생       (피로워하는)  
순희           안 되겠어요. 그만 들어가서 따뜻한 차라도 드셔야겠어요.

박선생, 기침을 애써 참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인다.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제자들.

인서트 컷 - 거실 벽면에 붙어 있던 그림 액자 하나가 툭 떨어지며 외장창 하고 깨진다. 액자가 깨지면서 뒹겨나간 그림이 뒤집혀 있고, 7번 이 세호 라고 초등학교 글씨도 적혀 있다.

S#37 별장 거실 N/I

미자, 쟁반에 차를 담아 박선생과 제자들이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 간다.  
차잔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데, 아이들의 표정이 매우 불편해 보인다.  
헛기침 하는 명호와 고개 숙인 소심이.  
손등으로 살짝 코를 막으며 찡그리는 순희.  
쿵쿵거리는 달봉.

달봉           누구야? 속 불편하면 어서 화장실...(하는데)

달봉이의 옆구리를 찌르는 순희.  
박선생을 바라보고, 아차 싶은 달봉이.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얼굴이 붉어지는 박선생.  
대충 눈치를 찰 미자.

미자           선생님 그만 주무실 시간 됐어요. 들어가셔야죠...  
박선생       (힘없이 끄덕이는)

미자, 부반장에게 눈짓을 하고 박선생의 휠체어를 밀고 간다.  
뒤따라가는 부반장.  
달봉이의 숨을 참았다가 거칠게 몰아쉬듯이 헉헉 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굳은 표정의 박선생을 밀고 방으로 들어가는 미자와 부반장.

명호           (목소리를 낮추며) 똥오줌 못 가릴 정돈 줄은 몰랐는데...  
달봉           저런 불쌍한 선생님한테 반장이 그 지랄을 했으니...참 면목이 없다



명호 반장 고민이 많은가 봐?  
 달봉 (혀를 차며) 결혼하는 놈이 무슨 고민!  
 명호 취직두 못했는데 결혼은 해야겠구... 집 구하느라 빚도 많이 졌다더라구...  
 달봉 (안됐다는 표정) 예전의 그 똑똑이가 왜 저렇게 됐나?  
 명호 반장두 반장이지만 선생님도 이제 보니까 참 딱하시다. 아들 때문에 남편  
 한테 버림받구 그 잘난 아들은 행방불명 되구.... 이제 피 붙이 하나 없이  
 혼자 병 들어서, 제자들 아니면 돌봐 줄 사람도 없구...  
 달봉 그러게... 찼...  
 소심이 (돈금없이) 남이 볼까 무서워서 지하실에 가둬놓은 그까짓 아들 있으나 마  
 나지.  
 달봉이 (기가 차다는 듯) 넌 또 뭔 헛소리야?  
 소심이 (피식 하고 웃는)  
 달봉이 저 새끼는 무슨 말만 하면 피식 하고 웃고 만다니까... (혼잣말로) 에이  
 계수 없어.  
 소심이 그런데 살아 있을 거란 생각 안 해봤어?

모두 당황하며 소심이를 바라본다.

소심이 접먹을 필요는 없어. 그냥 해본 소리니까  
 달봉이 이 새끼가 정말, 확실하지 않은 얘기 왜 꺼내구 지랄이야?  
 명호 난 그만 잘란다.  
 달봉 그래, 오늘은 이쯤하고 내일 일찍이 낚시나 해야겠다.  
 순희 벌써들 자는 거야?  
 달봉 이런 분위기에서 뭘 하겠나?  
 순희 분위기가 어때서...?  
 달봉 어떻긴... (소심이를 노려보며) 여기에 분위기 조지는 선수 한분 계시잖나...  
 예전에는 똥오줌 못 가려서 교실 분위기 흐리더니 이젠...  
 명호 (짜증내며) 임마, 그만 좀 해!  
 순희 (혀를 차며) 이렇게 투닥거릴거면 자는 게 낫긴 하겠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버리는 순희,  
 명호와 달봉이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홀로 소파에 앉아 있는 소심이.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S#38 별장. 울타리 밖 N/E

녹슨 그네가 흔들리는 소리.  
 그네를 타고 있는 소심이.  
 별장의 불꺼진 방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며 회상에 잠긴다.

S#39 인서트 썸 - 소심이의 회상 D/I

봄바람이 실랑실랑 창문으로 들어오는 교실 풍경.

판서를 하고 있는 젊은박선생.

웅성거리는 교실.

판서하다 말고 뒤돌아보며 교탁을 자로 내리치는 박선생.

박선생            판서 안 하구, 왜 이렇게 소란스럽니?

달봉이, 손을 든다. (C.U)

어린달봉이        선생님 누가 똥쌌나봐요.

박선생            무슨 소리야?

어린명호        (코를 막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원이가 쌌 거 같아요

동동한 어린 미자(정원) 쪽으로 걸어가는 박선생.

어린 소심이 주위로 어린달봉이, 명호, 순희, 반장, 부반장이 앉아 있다.

박선생            어떻게 된 거니?

어린소심이        (억울하다는 듯) 저.. 아냐예요

박선생            정말이니?

어린소심이        (고개를 끄덕이는) ...

박선생            (찍인 어린부반장에게) 니가 말해 봐

어린부반장        잘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정원이가 때가 살살 아프다고...

어린순희        (확신에 찬 얼굴과 확대되어 보이는 눈) 저도 아까 정원이 바지에 똥 묻은 거 본 거 같아요...

어린명호        확실해요... (소심이 쪽으로 코를 내밀며) 너무 심해요. 으

박선생            (흠흠 냄새를 맡아보며) 정원이 일어나...

어린소심이        (울먹이며) 선생님 저 안 썼어요...

박선생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어린소심이        선생님...

박선생            괜찮으니까 어서... 반장! 정원이 집 어딘지 아니?

어린반장        (인상을 구기며) 아.. 아뇨

어린소심이        선생님...

박선생            (하는 수없다는 듯) 어서 가방 싸.

어린소심이        저 안 썼어요, 진짜예요

박선생            (소리를 버럭 지르며) 어서 가방 싸라니까!

홀쩍거리며 가방을 싸는 어린 소심이.

가방을 다 싸기도 전에 손목을 붙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젊은 박선생.  
질질 끌려가면서 울부짖는 어린 미자.  
코를 막거나, 킁킁거리며 손부채를 만들어 흔드는 친구들을 원망스럽게 쳐다본다.

S#40 별장 앞마당 N/E

그네를 타고 있던 소심이의 모습이 사라지고 없다.

S#41 바닷가 N/E

바다에 돌을 던지는 반장.  
담배를 입에 문 채 취해서 혼자 중얼거린다.

반장           시발, 인과응보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말년에 그런 꼴로  
                  살구 있는 거라구... 그걸 알아야지...

일어나서 자크를 내리고 파도 끝자락에 소변을 보는 반장.  
반장에게 낮은 시선으로 다가가는 시선.  
반장, 자크를 울리고 딸꼭질을 하는데,  
끼리릭 끼리릭 커터칼을 놀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반장.  
숨을 죽이자, 커터칼을 놀리는 소리 역시 멈춘다.  
다시 딸꼭질을 하자, 커터칼 놀리는 소리가 들린다.  
침을 꿀꺽 삼키는 순간, 획 소리가 나며 물고 있는 담배가 반토막이 나며 날아간다.  
역지로 딸꼭질을 참으며 긴장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낡고 작아서 찢어진 체크무늬 스타킹을 신은 발이 보이고,  
또 다시 획 소리가 나며 더 째어지는 담배.  
터져버릴 듯이 커지는 동공.  
또 한번의 획 소리와 함께 반장의 외마디 비명소리.  
입술 양쪽에 붉은 선혈의 칼자국이 나면서 피가 공중에 퍼진다.  
피 문은 담배공초가 툭 떨어진다.

S#42 별장 지하실 N/I

창틀에 필통을 집는 검은 손.  
어둠 속, 걸상에 앉아 있는 반장의 뒷모습으로 다가가는 시선.  
끼리릭 끼리릭 커터칼을 놀리는 소리가 지하실에 유난히 크게 울리고,  
계속 해서 터져 나오는 딸꼭질로 어깨가 가끔씩 들썩거리는 반장.

툇툇툇툇, 하며 커터칼 날을 한칸 한칸 부러뜨리는 소리로 바뀌고,  
 반장의 찢어진 입에 콤파스가 위아래 앞니 사이에 끼워져 있다.  
 공포로 가득한 반장의 얼굴에 누군가 내려다보듯 그림자가 생긴다.  
 하얀 도화지 위에 한가득 커터칼의 조각난 날들이 반짝이고,  
 반장의 머리채를 잡고 콤파스로 벌어진 입에 부어버린다.  
 킁, 소리를 내며 한줄기 핏물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멈추지 않는 딸꾹질로 인해 꿀꺽꿀꺽 넘어가는 조각난 칼날들.  
 눈알이 뒤집히며 목에서 칼날과 함께 피가 뿜어나오고 거품처럼 피가 끓어오른다.  
 꺾꺾꺾꺾, 하는 음산한 웃음소리와 함께 철컹철컹 하는 스텝플러 소리가 섞여 들린다.

green!

S#43 박선생의 방 N/I

박선생의 치마를 걷어올리는 미자.

in 8:27

- 미자의 방 -  
 → 상임이사  
 ↓ 비영리단체  
 수석  
 but 사장이

미자 (잠시 멈추고) 잠깐 나가줄래?  
 부반장 응?  
 미자 (눈치 주는) ..  
 부반장 야, 나두 여자야...  
 미자 아니, 설사 친딸이라 해도 불편한 건 불편한 거거든  
 부반장 그럼 뒤돌아 서 있을 게

부반장, 창가로 가서 창밖을 향해 서 있다.  
 어두운 창밖으로 뿔가 획 지나간다.  
 가우똥하는 부반장.

미자 약 가지고 올게.  
 부반장 으응? 응.. 그래 (기저귀를 집는)  
 미자 (손목을 잡으며) 이걸 내가 나가면서 버릴게.  
 부반장 응...

미자, 기저귀를 들고 밖으로 나가다가.

미자 저기 미안한데 선생님 좀 씻겨 드릴 수 있겠니?  
 부반장 응? 으응... 그럼!  
 미자 그럼 부탁 좀 할게.

고맙다는 미소를 짓고 나가는 미자.  
 부반장, 시트를 정돈하는데 고개를 돌리는 박선생.

S#44 별장 욕실 N/I

빈 탕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박선생님의 몸을 씻겨주는 부반장.  
삐쩍 마른 박선생의 몸동아리를 보자 만감이 교차한다.

부반장 (타올에 비누를 묻히며) 선생님.  
박선생 응?  
부반장 15년 전의 오늘 생각나세요?  
박선생 (고개 숙인 채) ...?  
부반장 저희 6학년 때 스승의 날이요... 저 때문에 선생님 한바탕 즐거워 하셨었는데...  
박선생 ???  
부반장 아이들이 모두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준비해왔잖아요. 하나 하나 뜯어보시다가 제 선물을 보시구는 정말 호탕하게 웃으셨었어요.  
박선생 무슨 선물이었는데?  
부반장 제가 선물 살 돈이 없기두 하구, 정성이 있는 선물이 더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에... 종이에다가 깨알같이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삐뚤하게 써서 드린 거 기억 안 나세요?

인서트 컷 - 교탁에 가득한 선물. 종이 한 장을 팔랑팔랑 흔들며 이게 뭐니? 하며 박장대소하는 젊은 박선생. 자리에 앉아 고개 숙인 부반장.

부반장 (타올로 박선생의 몸에 비누칠을 하며) 선생님은 무지 즐거워 하셨는데, 전 조금 창피했었어요... 가난한 부모님두 순간 원망스러웠구요.  
박선생 그랬었구나...  
부반장 정말 고생 많이 하구 만든 선물이었는데... 너무 생각이 어렸죠?  
박선생 아니, 정말 귀한 선물이었겠는걸...  
부반장 (약간은 시니컬하게) 귀하긴요. 돈 봉투에 비하면 쓰레기나 마찬가지죠.  
박선생 !!!

박선생 등에 비누칠을 해주고 탕에 다시 눕히는 부반장.

부반장 잠깐 계세요.

일어서서 욕탕에 물을 틀고, 세면대에서 타올을 빠는 부반장.

물이 점점 차오르는 욕탕.

박선생, 비누 때문에 등이 미끄러져 몸이 점점 물속으로 들어간다.

얼굴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자 동공이 커지는 박선생.

무표정한 얼굴로 타올을 빠는 부반장.

마침내 귀, 뺨, 코 차례대로 물속에 잠기는 박선생의 얼굴.

물속에서 바라 본 부반장의 모습이 마구 흔들린다.

박선생이 내뱉은 기포가 점점 많아지면서 시야에 가득찬다.  
마침내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박선생.  
눈앞에 가득한 기포 사이로 부반장이 내려다보고 있는 듯.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박선생.  
이때 욕실 문이 열리며 미자가 수건을 가지고 들어온다.  
물에 잠겨서 허우적대는 박선생을 보고 깜짝 놀라는 미자.  
다급하게 박선생을 일으켜 세우는 미자.  
그제야 깨닫고 당황하는 부반장.

미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부반장에게 화를 내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부반장                미, 미안해... 잠깐 한 눈 판 사이에...

탕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물을 토해내는 박선생.

#### S#45 박선생의 방 N/I

침대에 누워 있는 박선생, 매우 지쳐 있는 표정이다.  
부반장, 박선생의 손을 꼬옥 잡고 있다.  
미자, 약을 가지고 들어온다.

미자                    괜찮으셔?  
부반장                응.  
미자                    다행이야.  
부반장                정말 면목이 없다  
미자                    나두 처음에 그랬어. 조금이라두 한 눈 팔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  
부반장                뭐 또 도울 일 없어?  
미자                    아깐 화내서 미안해. 이제 됐으니까 가서 좀 쉬어  
부반장                그래...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미자                    (미소 지으며) 그렇게.

박선생을 안타깝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가는 부반장.

#### S#46 별장 거실 N/I

박선생 방에서 나와 2층으로 올라가는 부반장.  
열려진 창문사이로 바람이 불어온다. 요란하게 흔들리는 실내 장식들.  
음산한 기운을 느끼는 부반장. 열려있는 창문이 벽에 부딪치며 '깡' 소리를 내는 동시에 벽  
면에 걸린 그림 액자가 떨어져 박살난다.  
깜짝 놀라는 부반장.  
잠시 후, 현관 쪽에 있는 빗자루를 들고 깨진 유리를 치운다.

그러면서 깨진 두 액자의 그림의 뒷면을 보게 되는 부반장.  
한 장은 17번 이세호, 또 한 장에는 25번 오은영이라고 적혀 있다.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부반장.

S#47 별장. 남자방 N/I

잠이든 명호와 달봉이.  
창밖의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창문을 자주 때린다.  
눈을 살며시 뜨는 명호.  
조심스럽게 일어나 침대 밑에 숨겨둔 원가를 꺼내고 밖으로 나가는 명호.

S#48 별장 2층 방 N/I

2층 방에 들어서서 부반장.  
누군가 침대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누워 있는 모습.

부반장            언제 들어 왔어? (대꾸가 없자) 벌써 자는 거야?

한숨을 푸욱 쉬는 부반장.  
뒤를 돌아 옷을 벗는다.  
흰색 슬립 차림으로 침대에 걸터앉는다.

부반장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그냥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구 오기루 한  
                          거 아니었어? 사실 나두 처음에는 감정 조절하기가 힘들었는데... 막상  
                          지켜보구 있자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 선생님 보니까 산다는  
                          게 참 허무해...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아무런 반응이 없자 등을 돌린 채 눕는 부반장.

부반장            (고개만 돌아보며) 그런데 말야. 뭔가 이상하다는 거 못 느꼈어? (다시 모  
                          로 누우며) 여기에 우리 말구 누가 또 있는 거 같아... 웬지 기분이 좀 그  
                          래. 아까 바다에서 두 쥐가 난 게 아니라 분명히 누가 잡아당기는 거였거  
                          든... 내말 듣고 있는 거야?

아무런 대꾸없이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는 누군가.

S#49 별장 외경 N/E

음산한 기운의 별장 외경.

방마다 전등은 소등이 되어 침묵만이 흐르고.

앞마당에 녹슨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는 빈 그네.

#### S#50 미자의 방 N/I

잠들어 있는 미자.

옆에는 빈 베개만 놓여 있고.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 순희의 뒷모습.

물끄러미 거울만 바라보고 있다.

선글라스를 다시 쓰는 순희.

창가로 다가간다.

창밖으로 별장 꽃대문을 나서는 명호의 모습이 보인다.

#### S#51 바닷가 바위 N/E

바위에 기대어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명호.

경련을 하듯 몸을 비틀고,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다.

인서트 컷 - 명호의 환각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멀찍한 박선생.

젖은 몸으로 명호에게 다가온다.

명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명호의 뺨을 스다듬는 박선생.

부드러운 손길이 턱을 타고 가슴으로, 팔뚝으로, 허벅지로 점점 내려간다.

명호의 목을 잡고 박선생의 가슴팍으로 얼굴을 닿인다.

눈새를 말듯 코를 명호의 머리에 깊숙이 박는다.

괴로워하며 몸서리를 치는 명호.

박선생            이제 다 컸구나, 우리 명호. 하긴, 넌 어렸을 적부터 누구보다도 성숙했었어. 그때가 생각 나. 그때 나도 한참 젊었었는데...

두 손으로 명호의 뺨을 잡고 마주보는 박선생의 그윽한 미소. (인서트 컷 끝)

바닷가 바위에 기대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는 명호.

미친 듯이 몸을 떨어대며 숨을 몰아쉬는 명호.

어느 새 나타난 순희, 명호를 정신 차리라며 흔들어 깨운다.

거품을 물며 발작 하는 명호.



S#52 별장 2층 방 N/I

어느 새 잠이 든 부반장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검은 손.  
긴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긴다.

부반장 (잠결에 미소 지으며) 간지러...

검지손가락으로 계속 해서 귀 뒤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뽀얀 귀가 흰히 드러난다.  
부드럽게 귀를 만지작거리는 검은 손.  
검지손가락으로 애무하듯이 컷바퀴를 살살 돌리다가,  
컷볼에 매달린 은색 링 귀걸이를 툭툭 건드린다.  
손가락을 링 속에 걸고 살짝 당기자 컷볼이 늘어난다. 살짝 쩡그리는 부반장.  
천천히 조금씩 잡아당기는 귀걸이.  
계속 늘어나는 컷볼, 찌릿한 통증에 실눈을 뜨는 부반장.  
귀걸이를 잡아당기는 손을 잡자, 털이 수북하다.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꼼짝도 할 수 없는 부반장.  
부반장은 숨도 쉴 수 없는 공포에 휘감기고,  
귀걸이에 붉은 피가 조금씩 물들기 시작한다.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는 순간 귀걸이를 확 잡아채는 검은손.

S#53 별장 지하실 N/I

필통을 열고 피 묻은 커터칼을 꺼내는 검은 손.  
어둠 속에 청테이프로 입이 막혀 있는 부반장 .  
양 쪽 귀밑으로 붉은 선혈이 목을 타고 내려와 앙상한 쇠골에 고여 있다.  
총혈된 눈동자를 공포스럽게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린다. (C.U)  
옆에 나란히 앉아 흥직하게 죽어 있는 반장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끼리릭, 끼리릭 하는 커터칼을 놀리는 소리.  
그 소리가 부반장에게 점점 크게 들려오다가 컷가에서 멈춘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툭, 하고 귀 위에 꽂히는 커터칼.  
의자에 묶인 온몸을 비틀며 고통에 몸부림 치는 부반장.  
하얀 치마를 입은 부반장의 허벅지 위로 피로 범벅된 컷덩어리가 툭 떨어진다.

S#54 바닷가 바위 N/E

나란히 바다를 보며 앉아 있는 순희와 명호.

명호 일년 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불알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날 몰라보더라구... 나중에는 자신이 누구구 어디서 살구

무슨 일을 하는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알구 보니까 이 짓을 하구 있더라구... 이걸 하면 기억력이 감퇴 된다니... 그래서 나두 시작했지.

순희 (끄덕이고는) ... 그래서 다 잊었어?  
명호 아니, 사람마다 다른지 나는 더욱 또렷해지더라구.  
까맣게 잊구 있었던 더러운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 떠올라, 시발.  
(주사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몸뚱인 썩어가는데, 머리는 더 좋아지는 거 같아, 젠장 (ㅋㅋ 대고 웃는)

S#55 별장 남자방 N/I

침대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는 달봉이.  
아픈 다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앉아 두 손으로 다리를 주무른다.  
뻗뻗한 다리를 주무르며 이를 악무는 달봉.  
신음을 내지르며 손아귀의 힘이 더욱 세게 들어간다.  
급기야 주먹으로 다리를 마구 내려치는 달봉이.  
거친 숨을 몰아쉬다 멈추고,  
날카로운 눈으로 뚫어질 듯 박선생의 방 쪽을 노려보는 달봉이.

S#56 바닷가 바위 N/E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입을 여는 순희.

순희 누구 말대루 나 오늘 진짜 웃졌던 거 같아. 오버하는 거만큼은 언제나 자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만큼은 정말 힘들더라...  
명호 나는 마냥 즐거운 니가 부러웠는데...  
순희 나두 그거나 한 번 해볼까?  
명호 ...!...(보면) ...  
순희 아니다. 이제 와서 모든 걸 잊는다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순희, 미소 지으며 쓸쓸히 바다를 바라본다.

S#57 박선생의 방 N/I

불 꺼진 방, 어둠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자고 있는 박선생.

인서트 컷 - 박선생의 꿈

경반에 음식물을 담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 박선생.  
잠겨 있어야 할 지하실 문이 살짝 열려 있다.  
곧은 얼굴로 지하실에 들어서고, 어둠속에서 주위를 살펴보는 박선생.  
당황하는 박선생의 얼굴. 경반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지하실 문을 울려 퍼진다.  
카메라 흔들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별장 이곳, 저곳을 휘집고 다닌다.  
별장 밖에 남피러지, 방파제까지 흔들리는 화면으로 휘집고 다니다가  
앞마당에 흰얼이 들어오는 한 젊은 박선생.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누군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는 젊은 박선생.

꿈에서 깨어나며 눈을 번쩍 뜨는 박선생.  
이미에 식은땀이 흥건하다.  
박선생의 배 위에 달봉이의 선물, 너털너털한 어린아이의 운동화가 올려져 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딸깍딸깍 소리 .  
스위치의 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 한다.  
불이 켜질 때마다 방문 앞에서 있는 달봉이의 모습이 잠깐씩 보였다가 사라진다.  
계속해서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잠깐씩 보이는 달봉이.

박선생                   (달봉이를 보며) !!!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이 켜졌다 꺼지면, 달봉이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낡은 멜빵 바지에  
찢어진 체크무늬 스타킹을 신은 누군가가 함께 보였다 사라진다.  
어둠 속에서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달봉이.  
스위치를 다시 올리는 순간, 무언가가 달봉이의 얼굴을 덮친다.

#### S#58 별장 거실 N/I

미친 듯이 방에서 튀어나오는 달봉이. 불편한 다리로 도망치는 모습이 필사적이다.  
쿵쿵쿵 하면서 누군가 뒤따라오는 소리.

#### S#59 앞마당 차 안 N/E

다급하게 시동을 거는 달봉이.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짜증을 내며 핸들을 내리치는데 천천히 차가 앞으로 밀리기 시작한다.  
겁먹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는 달봉이.  
하지만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점점 빠르게 움직이는 차.  
차 문을 열고 뛰어 내리는 달봉이.  
멈추는 차.

차 뒤쪽에서 걸어 나오는 체크무늬 스타킹.  
기겁을 하는 달봉이.

S#60 별장 앞 도로 N/E

질퍽거리며 도망치는 달봉이.  
뒤를 쫓는 체크무늬 스타킹.  
불편한 다리 때문에 아스팔트 요철에 걸려 넘어지는 달봉이.  
괴성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기어간다.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검은 손에 발목이 잡히는 달봉이.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친다.

달봉이 (팔 다리를 내저으며) 뭐야! 왜 이래... 이러지마, 저리 꺼져!

아스팔트에 얼굴이 긁히며 질질 끌려 간다.  
달봉이 끌려 지나간 자리에 바닥 군데군데 핏덩어리 살점이 뜯겨져 있다.

S#61 별장 지하실 N/I

어둠 속에서 철컹철컹 하는 스템플러 박는 소리가 지하실 안에 울려 퍼지고,  
기절한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달봉이.  
옷에 스템플러가 박혀 십자가에 매달린 듯 팔을 벌리고 아슬하게 벽에 매달려 있다.  
또 다시 필통에서 커터칼을 꺼내는 검은 손.  
끼리릭 끼리릭 커터칼을 놀리는 소리가 들린다.

S#62 별장 미자방 N/I

잠이 들어 있는 미자.  
창문이 열려 커튼이 휘날린다.  
미자,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곤 다가가서는 창문을 닫는다.  
벽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는 미자.  
가디건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자고 있던 순희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S#63 별장 앞마당 일각 N/E

한약을 다리고 있는 미자.  
졸린 듯 하품을 하며 부채질을 열심히 한다.

S#64 바닷가 모래사장 N/E

순희와 명호의 별장 쪽으로 걸어간다.  
걸음을 멈추는 명호, 순희도 앞서 가다가 뒤를 돌아본다.

명호            아무 걱정 말구 그냥 편하게 자는 거야, 어때?  
순희            글썽... 잠이 올까?  
명호            (진지하게) 부탁이야.  
순희            넌?

대답 없이 앞서 걸어가는 명호.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기는 순희.

S#65 별장 앞마당 일각 N/E

부채질을 하다가 시선이 한 곳에 고정 되는 미자.  
바로 옆 지하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음을 깨닫는다.  
불길한 예감이 미자의 얼굴에 스친다.

S#66 별장 지하실 N/I

후레쉬를 들고 지하실에 들어서는 미자.  
구석구석을 비춰보는 미자.  
후레쉬 불빛이 누군가가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에 고정된다.  
움찔하는 미자.

미자            (긴장한 목소리로) 거기... 누구니?

대답이 없자, 다가가는 미자.  
스텝플러로 위아래 입술을 짚어버린 반장의 얼굴과  
귀가 잘려나간 부반장의 얼굴에 빠르게 후레쉬 불빛에 스치고 지나가고.  
벽에 매달린 달봉이를 비춘다.  
겁에 질려 걸음을 멈추는 미자.  
갑자기 투두둑 소리가 나며 벽에 박힌 스텝플러 알이 튕겨나가고,  
아래로 점점 미끄러지듯이 내려앉는 달봉이.  
마침내 아래로 떨어지자 벽에는 잘려진 손목만 남아 있다.  
후레쉬를 떨어뜨리는 미자.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지른다.

S#67 별장 거실 N/I

현관에 들어서서 명호와 순희.

순희와 명호, 미자의 비명소리에 서로 바라본다.

지하실 계단 아래로 뛰어 내려가는 명호.

따라가다가 계단 앞에서 멈추는 순희.

S#68 별장 지하실 N/I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미자.

후레쉬로 흥직하게 죽어 있는 반장, 부반장, 달봉이를 차례대로 비춰보는 명호.

일그러지며, 맘을 다잡고 지하실 이곳저곳을 후레쉬를 비춰보는 명호.

여전히 정돈이 잘된 책과 장난감들.

어두운 벽면에 걸려있는 기형아의 옷과 가면

명호, 미자를 쳐다보자 미자는 고개를 가로젓기만 한다

명호            웃기지마! 말도 안돼! 그 괴물 같은 새끼는 15년 전에 사라졌어! 지금까지  
소식이 없었으면 죽은 거야! (미자의 멍살을 잡고) 니가 두 눈으로 확실하  
게 본 거야? 그런 거야? 아니잖아!

미자            (떨리는 목소리로) 정원이가... 정원이가 본 거 같아...

명호            (이를 악물며) 그 새끼 어딴어?

미자            (고개를 가로 젓는)

명호            그래, 그 새끼야... 그 새끼가 틀림없어.

미자            명호야...

명호            그 새끼가 한 짓이야! 지금까지 푹푹 묻어두고 있다가 이제서야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라구! (불안한 듯 눈동자가 떨리며) 틀림없어. 그 새끼야!

미자            (믿을 수 없다는 듯) 설마..

순간, 쿵하고 닫히는 지하실 문.

명호, 달려가 지하실 문을 당겨보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다.

마구 문을 두드리며 소리친다.

명호            밖에 누구야? 문 열어! 죽여 버리기 전에 어서 문 열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는 명호.

S#69 박선생 방 N/I

침대에서 떨어지는 박선생.

지하실에서 명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밖으로 기어나가려는데 미니스커트를 입은 미끈한 다리가 앞을 가로 막는다.

다급하게 침대 밑에 손을 넣고 휘젓는 박선생.

침대 밑 반짓고리에서 가위를 꺼내려는데 손을 밟는 순희.

순희 (담담하게) 선생님, 여긴 위험해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는 순희.

성형 후유증으로 흥작해진 눈이 공포스러울 정도다.

일그러지는 박선생.

S#70 숲 속 N/E

숲 속, 철쭉 같이 어두운 오솔길에 휠체어를 밀고 가는 순희의 뒷모습.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천천히 휠체어를 밀고 간다.

S#71 별장 지하실 N/I

명호, 온몸으로 문에 부딪히자 짹, 하며 갈라지는 문.

발로 미친 듯이 갈라진 부분을 내리찍으면서 괴성을 지른다.

갈라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고 문을 여는 명호.

미자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간다.

S#72 별장 거실 N/I

인서트 컷 - 거실 벽면에 붙어 있던 그림액자 모두가 떨어져 깨져 있다.

거실에서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는 미자.

하지만 누군가 전화선을 끊어놨는지 먹통이다.

불길한 표정으로 박선생 방을 쳐다보는 미자.

S#73 박선생 방 N/I

뛰어 들어오는 미자. 침대에는 박선생은 온 데 간 데 없고

순희의 선글라스만 덩그러니 침대에 놓여 있다.  
미자, 선글라스를 집어서 바라보다 창 쪽으로 간다.  
숲속 어둠 속에서 푸다닥 하며 새들이 허공으로 날아오른다.

S#74 낭떠러지 N/E

낭떠러지 바로 앞에 떨어질듯 휠체어가 위험하게 걸쳐 있다.  
눈을 질끈 감고 있는 박선생.  
뒤에서 휠체어를 잡고 있는 순희.

순희            다른 애들은 몰라두 전 이곳에 올 때부터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어요.  
                 내 손으로 선생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그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면...  
                 밟고 또 밟았어요.

박선생        (이를 악물고) 이러지마, 제발...

박선생의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S#75 숲 속 N/E

미친 듯이 선생을 찾는 미자.  
맨발로 비틀 비틀 사방을 둘러보며 쓰러질 듯 어디론가 계속 걸어간다.  
어둠에 발을 헛딛어 넘어지면서도 계속 선생을 찾는 모습이 안타깝다.

S#76 낭떠러지 N/E

여전히 낭떠러지에서 휠체어를 잡고 있는 순희.

순희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잘 먹구 잘사는 애들이 선생님을  
                 다시 찾는 법인데, 오늘 모인 애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실패자뿐이잖아요.

박선생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희.

순희            마냥 좋으셨어요? 결국 이런 구석진 곳까지 선생님을 찾아 왔다면  
                 뭔가 있겠거니 하구 생각하셨어야죠.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찾아해매다가 다들 나처럼 결국 해답을 찾았  
                 나 봐요.

박선생, 순희를 올려다보며 날카롭게 쏘아본다.



박선생 (표독스럽게) 억지 부리지마!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니들 인생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순희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버하듯 큰소리로 웃는 순희.

일그러지며 고개를 떨구는 박선생.

박선생 (울먹이며) 내, 내가 잘못 했어... 제발

순희 똥오줌도 못 가리구 살면서 무슨 미련이 그리 많으세요? 저처럼 마음 비우세요. 이제 병원에서 받아주지두 않아요. 후유증으로 사람 취급두 하지 않거든요.

박선생 (애원하듯) 제발... 순희야...

순희 너무 늦었어.

표정이 굳어지는 순희.

휠체어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

남떠러지 아래로 휠체어를 밀려고 하는 순간,

안돼! 하면서 뒤에서 순희를 덮치는 미자. 함께 넘어지는 둘.

순희 비켜! 너도 죽어 버릴 거야.

미자 이러지마!

순희는 재빨리 일어나 미자의 배를 걷어찬다. 육, 하며 배를 움켜쥐는 미자.

그 틈을 타 휠체어를 잡는 순희의 발에 매달리는 미자.

순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휠체어도 쓰러진다.

땅바닥에 고꾸라지는 박선생.

미자 위에 올라타서 죽일 듯이 목을 조르는 순희.

순희 죽어, 죽어버려! 저런 년 밑이나 닦아주면서 살 바엔 차라리 죽어버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순희. 미자는 간신히 손을 뻗어 돌맹이를 집어 순희의 머리를 가격한다.

나가떨어지는 순희. 미자는 일어나서 박선생한테 달려간다.

비명을 지르면서 미자에게 다시 달려드는 순희. 발을 헛딛으면서 함께 언덕 쪽으로 굴러 떨어진다.

간신히 튀어나온 돌부리를 붙잡고 매달린 미자.

아래를 내려다보면 역시 힘겹게 나무뿌리를 잡고 버티고 있는 순희가 보인다.

미자가 손을 내밀자, 미자의 손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순희.

그러나 버티고 있던 나무뿌리가 뽑히면서 언덕 밑으로 떨어진다.

땅에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 목이 꺾이는 끔찍한 소리가 미자의 귓속으로 파고든다.

미자 (안타깝게) 순화야!!

하지만 겨우 버티고 있던 손아귀의 힘이 점점 빠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머리 위로 어느 새 기어온 박선생이 손을 뺐고 있다.  
불편한 몸으로 안간힘을 써서 끌어올리는 박선생.  
결국 겨우 기어 올라오는 미자.  
힘에 겨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박선생을 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S#77 별장 앞마당 N/E

박선생을 휠체어에 태워 지친 표정으로 별장 안으로 들어서는 미자.  
기분 나쁠 정도로 너무나 조용한 별장과 그 주변.  
앞마당 한가운데서 불안한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는 미자.

S#78 별장 거실 N/I

박선생을 안고 들어오는데 뒤에서 각목을 내려치는 명호.  
박선생을 안고 쓰러지는 미자.  
몽둥이로 무조건 내리치는 명호.  
박선생을 몸으로 막아내며 비명을 지르는 미자.  
화면 바뀌면 미자 홀로 거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홀로 쓰러져 있다.

S#79 낭떠러지 아래 N/E

목이 꺾인 채 죽어 있는 순희.  
손가락이 까닥 까닥 움직인다.

S#80 별장 지하실 N/E

철판 앞에는 박선생이 의자에 묶여 공포에 떨고 있다.  
휘발유 통을 집어 드는 명호.  
얼굴에 휘발유를 붓자 괴로운 듯 고개를 마구 흔드는 박선생.  
지친 박선생의 얼굴에 눈물과 휘발유가 범벅이 되어 흘러내린다.  
박선생을 죽일 듯이 내려다보는 명호.

명호 덕분에 난 정신치료를 받고 학교에 탄원서를 낸 엄마는 미친년 소리를 듣

게 됐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형아를 낳구 키웠으니 나같이 멀쩡한 아이를 보면 그럴 만두 했겠단 생각이 들어...

휘발유를 박선생의 온몸 구석구석 꼼꼼히 뿌리면서 계속 말을 잇는다.

명호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러웠겠어. 내가 그 한을 풀어줄게.  
이 세상과는 빨리 인연을 끊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괴로운 듯 몸을 비틀어대는 박선생.

명호            너무 괴로워하지 마. 다음 세상에서 만날 멀쩡한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이까짓 고통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설마 다음 세상에서두 또 기형아를 낳기야 하겠어?

박선생과 나란히 앉아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라이터를 꺼내는 명호.  
라이터 불빛을 박선생의 얼굴에 비춰본다.  
공포스러움에 눈동자가 떨리는 박선생.

명호            대신 다시 태어나면 선생질은 하지 마!

S#81 낭떠러지 N/E

낭떠러지 위로 흙투성이의 순희의 손이 툭 하고 올라온다.

S#82 별장 지하실 N/I

낄낄대고 실성한 놈처럼 웃어 대는 명호.  
약 기운에 덜덜 떨리는 라이터를 든 손.

명호            잊고 싶었어. 모든 걸 다 잊구 다시 시작하구 싶었어.  
차라리 병들어 지친 당신을 보면 어찌면 다 용서가 될지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꿈에서 수천 번두 넘게 당신을 죽인 걸로 미련이  
없을 줄 알았는데...

라이터에 불을 당기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명호.  
라이터 불빛 뒤로 어스름하게 보이는 어둠 속에 기형아의 웃.  
벽에 걸려 있는 줄만 알았던 웃이 어둠 속에서 불쑥 걸어 나온다.  
명호에게 다가오는 기형아의 실루엣



S#84 별장 거실 D/I

힘겹게 박선생을 부축하며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미자.  
거실에 올라와 힘이 부쳐 쓰러진다.  
거실 소파 쪽으로 보이는 핸드폰.  
안간힘을 쓰며 소파 쪽으로 기어가는 미자.  
가까스로 핸드폰을 잡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현관에서 비틀 비틀 걸어 들어오는 순희.  
목이 꺾인 채 두 손을 내밀고 무작정 박선생에게 다가 온다.  
갑작스런 일에 비명을 지르는 미자.  
순희, 박선생의 목을 조르는 듯 하더니 무릎 위에 풀썩 쓰러진다.  
하얗게 뜬 눈으로 박선생을 올려다보며 숨을 거두는 순희.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박선생의 다리를 흥건하게 적신다.  
갑자기 거세게 쏟아지는 비.  
오열하는 미자의 울음소리가 빗속에 울려퍼진다.  
(F.O)

S#85 병실 N/I

밝아지며 천장의 형광등이 화면에 가득 찬다. (F.I)  
시선이 내려가면 여전히 박선생은 산소 호흡기를 댄 채 누워 있고  
침대 위에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서럽게 울고 있는 미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미자의 손가락 사이에는 마형사가 건네 준 명함이 쥐어져 있다.  
안타까운 듯 물끄러미 바라보는 마형사.  
수첩을 닫으며 안주머니에 넣는다.

S#86 병실 복도 N/I

핸드폰을 통화하며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마형사.

마형사                    이름은 유정원. 나이는 29세. 삼척 초등학교 다녔고,  
                              피해자들이랑 동창이야. 어, 그래. 일단 수배부터 때리구 소개 파악해봐!

상기된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마형사.  
앞 썬에 낚시기방을 매고 사건현장을 기웃거리던 남자가 뇌리에 스친다.

S#87 도로 위 N/E

어디론가 달려가는 마형사의 차.  
핸드폰 벨소리가 들린다.

마형사 (OFF) 영. 알아봤어? 그래, 어디라구?

끼익 타이어소리를 내며 유턴하는 마형사의 차.

S#88 병원 복도 N/I

텅빈 병원 복도.

슬리퍼를 끌며 물병에 물을 담아 오는 미자. 문득 걸음을 멈춘다.

정적이 흐르고 어디선가 기형아의 웃음소리와 흡사한 끼끼끼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낮익은 소리에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미자.

점점 커지며 다가오는 웃음소리.

소리가 다가올수록 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미자를 향해 달려오는 시선

가까워질수록 불안함이 극도로 달하는 순간 꺾어진 복도 끝에서 병원침대가 나타난다.

미자 쪽으로 굴러오는 병원침대 바퀴의 요란한 마찰음.

기형아의 웃음소리로 오해했음을 깨닫는 미자.

약간은 안심하는 듯하다가 박선생 홀로 누워 있을 병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표정이 굳어진다.

S#89 병실 N/I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반듯이 누워있는 박선생.

미자, 박선생 옆에 앉아 엎드려 있다.

카메라 박선생의 몸을 훑듯이 아래로 점점 내려오다가

시트 밖으로 나와 있는 박선생의 손가락에 멈춘다.

클로즈업 된 손가락이 까닥까닥 움직인다.

움직이는 박선생의 손가락을 발견하는 미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박선생의 손을 꼬옥 잡는다.

S#90 서민아파트 앞 N/E

허름한 서민 아파트 앞에 경찰차와 기동대 차량이 서있다.

주민들이 몰려들고, 그들을 통제하며 아파트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경찰들.

5층 꼭대기층 어두운 베란다에 텔레비전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온다.

S#91 아파트 거실 N/I

어두운 거실 안, 물건이 여기저기 어지러 있고 먼지가 가득하다.  
낡은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린다.  
현관문을 빠르게 뜯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들이닥치는 김형사와 경찰들.  
쾌쾌한 냄새가 콧속으로 파고들자 인상을 구기는 김형사.  
총을 겨누고 거실 안을 살피는 김형사.  
에어컨의 싸늘한 냉기가 온 집안을 휘감고 있어 오싹한 기분을 들게 한다.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텔레비전 불빛이 세어나오고 있다.  
묘한 기분을 느끼는 김형사.  
긴장한 얼굴로 총을 겨누고 방으로 다가간다.

S#92 서민아파트 앞 D/E

위를 올려다보며 응성거리는 사람들.  
아파트 앞에 도착하는 마형사.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 올라간다.

S#93 아파트 거실 D/I

현관문의 바리케이드를 넘어 거실로 들어서는 마형사.  
방안에서 뛰어나오는 김형사.

김형사            오셨어요?  
마형사            유정원이는?  
김형사            아직 집에 들린 흔적은 없구요. 그것보다...

짱그리며, 방을 바라보는 김형사.  
열려 있는 방 안쪽으로 흔들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백발노인의 뒷모습이 보인다.  
의미심장한 얼굴로 다가가는 마형사.  
굳은 얼굴로 천천히 노인 앞으로 다가서는데,  
숨이 끊긴지 한참이나 지난 듯 썩어 들어간 노파의 흉직한 얼굴이 드러난다.  
당황하는 마형사.

S#94 바닷가 D/E

수평선에 붉은 기운이 감돌면서 날이 밝아오는 새벽.  
멀리 바닷가에 휠체어를 밀고 가는 미자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인다.

S#95 서민 아파트 방 D/I

방안 가득한 약상자와 의료기구를 살펴보는 마형사.  
죽은 노파를 살펴는 김형사, 얼굴을 찡그린다.

김형사            사망한 지 1년은 족히 넘은 거 같은데 유정원이 행방이 묘연한 시점과 비슷해요.

김형사의 말을 들으며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진들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마형사

김형사            어머니 교통사고로 초등학교를 중태하고 어렵게 살았나 봐요. 어린 나이에 파출부에다 다방에다 별의별 안 해본 일이 없구요. 간호사로도 한동안 일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러다 1년 전쯤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사망시점부터 유정원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S#96 방파제 D/E

방파제 끄트머리에 서 있는 휠체어  
뒤에서 휠체어를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미자

미자            (OFF) 이렇게 살아주셔서, 끝까지 잘 버텨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남은 건 아무 것도 없어요. 이제 전 정말 선생님이 없으면... 없으면...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미자.  
눈물이 똑똑 떨어진다.  
바람이 더 세게 불면서 미자의 앞머리가 정신없이 흔들리고,

미자            살 의미가 없어요.

다시 고개를 들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는 미자.



S#97 서민아파트 방 D/I

방 벽면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진마다 사람의 머리를 칼로 오려낸 자국들.

김형사            유정원의 원한이 깊었나 봐요.

사진을 살펴보는 마형사에게 앨범을 내미는 김형사.

앨범을 받아두고 펼쳐보는 마형사.

단체로 찍은 졸업사진에는 몇 명의 아이들의 얼굴에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다.

김형사            표시된 아이들이 이번에 죽은 피해자들이예요. 스승의 날만 되면 매년 별장에서 동창회를 했다는데... 유정원이 그날을 노린 거 같아요.

간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업의 여성 유니폼과 야한 옷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가득한 화장대가 마형사의 눈에 또렷이 들어오는데

김형사            그런데 문제는 유정원이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 그것도 여자 몸으로 다  
죽일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저항도 만만찮았... (하는데)

마형사            (똑바로 쳐다보며) 잠깐...!

김형사            (움짤하며) ...?

마형사            여자... 몸이라니?

S#98 방과제 D/E

쓸쓸히 바다를 바라보는 박선생 (C.U)

힘없이 옆에 앉아 있는 미자를 내려다본다.

박선생            (회피하게) 정, 정원아.

미자                (박선생을 올려다보며) 네, 선생님.

박선생            (떨리며) 나.. 난 왜...

미자                왜 선생님은 살려두었나... 그게 궁금하세요?

평화로운 눈으로 다시 바다를 바라보는 미자.

미자                선생님과 저는 사는 게 고통이고 죽는 게 행복이잖아요.

천천히 일어서는 미자.

박선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소 짓는다.

미자                선생님을 행복하게 할 순 없어요.

S#99 서민아파트 방 D/I

마형사에게 수첩 사이에 끼워놓은 사진을 펼쳐보이는 김형사.  
당황한 얼굴로 사진을 빼서 자세히 바라보는데  
밝게 웃고 있는 미자의 얼굴 사진이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김형사를 빤히 바라보는 마형사.

김형사 (의아해하며) 진짜... 유정원이가 여자인줄 모르셨어요?

마형사를 부르는 김형사의 목소리가 귀에 웅웅거린다.  
멍해지는 마형사. 미자의 사진을 툭, 떨어뜨린다.

S#100 학교 복도 D/I

복도에 끌려 나오는 미자. (앞편의 남자소심이에서 여자 정원으로 바뀜)  
가방의 책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아이들, 뒤따라 나와 코를 막고 끌러가는 미자를 불쌍한 듯 바라본다.

S#101 단칸방 D/I

울고 서 있는 미자의 팬티를 벗기는 미자 모.  
어린 미자 (정원) 의 팬티에 똥이 아닌 빨간 피가 묻어 있다.  
얼굴이 굳어지는 미자 모.  
놀란 듯 주저앉아 구석에 웅크리며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미자  
그런 미자가 안타까운 미자 모.  
팬티를 움켜쥔 채 화가 난 얼굴로 밖으로 뛰어 나간다.

미자 (OFF) 어린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냄새를 잘못 맡은 코가 죄이고,  
선불리 떠들은 입이 죄이고, 잘 못 알아들은 귀가 죄이고, 잘 못 본 눈이  
죄겠지요...

S#102 횡단보도 D/E

학교 앞 횡단보도에 서 있는 미자 모.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급한 걸음으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달려오던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미자 모를 덮친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미자 모.  
손에 쥐어 있는 피 묻은 미자의 속옷.

미자 (OFF)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선생님은 좀더 신중하셨어야 했어요...

S#103 도로 위 D/E

차를 타고 달리는 조급한 표정의 마형사.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가 자주 꺼져버리자  
담배를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마형사의 귀에 라디오 뉴스속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

아나 강원도 OO별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집단 학살의 피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 습니다. 서울 대학교 김명호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 는 모기업의 핵심 연구원이었으며, 오은영 판사는 국내 최연소 사시합격자 로서 다음 달 경기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될 예정이었고, 고순희씨는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으로 각종 영화와 드라마의 신인배우로....

죽은 친구들의 화려한 이력을 말해주는 아나운서의 멘트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핸드폰이 울려댄다.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보는 얼떨떨한 마형사의 표정

S#104 별장 앞마당 D/E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별장 앞에 서있는 마형사.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다.

김형사 (OFF)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나저나 부검실에서 연락 왔는데요. 피해자들 부검결과 사인이 과다출혈이 아니라 독극물이래요. 이제야 뭔가 이해가 가요.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때 울타리 밑에서 경련하며 죽는 고양이 (첫 장면에 등장한) 의 모습이 뇌리에 스친다.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선다.  
마당 앞에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고양이 시체를 바라본다.

S#105 몽타주 (플래시 백)

-아이들의 잔에 복분자주를 한잔씩 따르는 미자.  
-오열하는 박선생의 모습.

- 갑자기 식탁 위에 피를 토하는 명호.
- 식탁 위에 피를 머금고 널브러져 있는 반장과 부반장.
- 식탁 밑에 쓰러져서 배를 잡고 뒹구는 달봉.
- 검먹은 순희의 머리채를 잡고 입에 복분자주를 들이 붓는 미자.
- 뒤에서 살려달라고 휠체어를 잡는 순희. 선생님의 등에 피를 토한다.
- 박선생을 바라보고 씨익 웃으며 전화를 하는 미자.
- 거실에서 바닥에 널브러져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선생. 눈이 뒤집히며 기절한다.

S#106 별장. 앞마당

- 그녀가 있는 쪽을 바라보는 마형사.
- 낡은 그네 몸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네는 없다.
- 미자가 한약을 달이던 곳으로 향하는 마형사.
- 한약 약탕기 옆으로 큰 지루가 보이고 내용물을 쏟아보는 마형사.
- 안에서 똥 묻은 기저귀와 잡풀 (독풀) 이 우르르 쏟아진다.
- 냄새를 맡아보고 경직되는 마형사의 표정.
- 병원에서의 의사의 말이 뇌리에 스쳐간다.

의사                    (OFF)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몸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태  
                              거든요.

S#107 별장 지하실 D/I

- 지하실에 들어서시는 마형사. 창가로 다가간다.
- 녹이 슬어 열리지 않던 필통을 억지로 여는 마형사.
- 안에서 깨끗하게 다듬어진 연필들이 쏟아진다.

김형사                    (OFF) 참 그리고 알아보라던 그 여자 있잖아요. 김미자인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동창 중에도 없고, 그 학교 다닌 기록도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  
                              는데... 대체 누구예요? 이 사건이랑 관계있는 여자예요?

밝은 빛이 쏟아지는 창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지는 마형사.

S#108 인서트 씬 - 몽타주

- 체중계 옆에서 뚱뚱하지만 깔끔해 보이는 어린 순희와 께죄죄하고 뚱뚱한 어린 미자가 나란히  
          서 있다. 체중계를 발로 톡톡 치며 잔소리를 해대는 박선생. 하지만 순희는 내버려두고 어린  
          미지만 뱃살을 꼬집고 꿀밤을 먹인다.

- 고개 숙인 채 키득거리는 순희와 킁킁대고 웃는 아이들.
- 초췌한 행색의 어머니가 교무실에서 촌지를 건네는 걸 힐끔거리며 보는 어린 반장 뒤로 이를 악물고 바라보고 있는 뚱뚱한 어린 미자의 모습이 보인다.
- 선물이 가득한 교탁 앞에 서 종이 한 장을 펴려거리며 웃고 있는 젊은 박선생. 고개 숙이고 있는 부반장 뒤로 얼굴이 빨개진 뚱뚱한 미자 서 있다.
- 릴레이를 하는 운동장 라인을 따라 앉아 있는 학생들 사이에 뚱뚱한 미자가 보이고, 미자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달봉이, 박선생 달려와 벗겨진 낡은 운동화로 미자의 뺨을 갈긴다.
- 뜨거운 태양 아래 오리걸음을 하는 뚱뚱한 어린 미자. 개거품을 물며 고꾸라진다.
- 지하실 창문에 붙어 있는 뚱뚱한 어린미자. 뒤에 서 있는 박선생. 귀싸대기를 날리고 뚱뚱한 어린 미자를 개처럼 끌고 간다.

S#109 방파제 D/E

묘한 미소를 띠며 박선생의 뺨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는 미자.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박선생.

미자                    가난하고 못생기고 공부 못하면 선생한테 늘 그런 식으로 대접받기 마련이  
                              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선생님인가요? 팔자가 그런 저의 잘못인가  
                              요? 아니면 원래 당연한 건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자신의 목덜미에서 목걸이를 풀러 박선생의 목에 걸어주는 미자.  
일어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간다.  
방파제 끝에 서서 떨어질 듯 말 듯 바람에 흔들리는 미자.  
미자가 걸어준 목걸이의 펜던트 속에는 미자와 미자 모가 환하게 웃고 있다.

미자                    (OFF) 나 하나만 바라보고 질기게 살아 온 내 어머니예요. 평생을 개처럼  
                              고생만 하다가 개만도 못한 죽음을 당했던 불쌍한 내 어머니 기억하시죠?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똑똑 흘리는 박선생.

화면 바뀌고 (시간 경과)

날이 밝아서 새벽 안개가 끼고 파도가 거칠게 몰려와 방파제를 두들긴다.  
방파제 고틀머리에 홀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박선생의 뒷모습.  
허겁지겁 박선생에게 뛰어가는 마형사.  
고개를 떨구고 아무런 미동도 없는 박선생.  
가까이에서 예감이 안 좋은 듯 걸음을 천천히 늦춘다.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분 나쁜 노래 소리.  
'스승의 은혜' 노래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어 자근자근 들려온다.  
마형사, 경직된 얼굴로 사방을 둘러보지만,  
미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괴성이 울리고 난 뒤 노래 소리는 사라지고  
파도 끝자락에 미자가 입고 있던 옷자락만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다. (F.O)

S#110 에필로그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F.I)

바다가 보이는 산중턱의 양지바른 곳에 휠체어에 앉아 있는 박선생.

전보다 더 초췌해진 모습으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박선생의 발 앞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자그마한 무덤이 있고,

그 앞에 어설피게 세워놓은 비석이 있다.

기력이 쇠한 잦아드는 목소리로 나지막히 울조리는 박선생.

박선생

비록 기형아였지만, 내 배 아파 난 자식을 차마 버릴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 아이를 지켜야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자상하게 챙길 여유 같은 건 없었어요. 제 인생은 오로지 그 아이를 먹여 살리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랬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화내고, 모질게 때리고, 못 되게 굴고... 그게 그렇게 큰 상처 두 남을 줄은 몰랐어요... 전 선생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선생 이기 전에 어른으로서 부족한 게 많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죄 없는 아이들을 죽였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제 아들을...

고통스럽게 흐느끼다가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박선생.

그런 박선생을 침울하게 바라보는 마형사.

어깨에 쇼울을 덮어주곤 자리를 피한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카메라 뒤로 빠지며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박선생의 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the end-